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월) 12:00
(지 면) 2026. 11. 3.(화) 조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대응 역량 높인다

- 11.2.~3. 중앙·지방정부 자연재난 담당자 대상, '26년 자연재난 워크숍 개최
- 여름철 재난 대응 우수사례 및 겨울철 정책방향 공유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 전남광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자연재난 담당자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연재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올여름철 발생한 풍수해·폭염·가뭄 대응 과정을 함께 되짚어보고, 각 지역의 재난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의지를 다졌다.

또한 본격적인 겨울철 대책기간을 앞두고 기관별 주요 대책과 향후 대응 방향도 폭넓게 논의됐다. 행정안전부의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추진계획을 시작으로 기상청의 올겨울 기상 전망, 국토교통부의 도로 제설 방안 발표가 이어지며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겨울철 대설과 한파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신일철 (044-205-5230)
		담당자	사무관	최회동 (044-205-5236)
		담당자	사무관	남도현 (044-205-52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